



대행스님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 
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 
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 
쭈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 
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중로  
구 견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  
당자 알 ●인터넷: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  
FAX: (031)470-3116

# 길을 묻는 이에게

##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어

오늘은 입춘입니다. 입춘이라 함은 봄이 오는  
소식을 갖다 주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리  
고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다가오는  
소식이며,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봄을 다스릴  
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  
기를 하고 싶습니다.

항상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일체 모든 걸  
주인공에 맡겨 놓고 살라는 겁니다. 어떠한 거든  
지 '해 주세요'가 아니라 '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 
있다'고 믿으며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맡겨 놓고  
일을 하십시오.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. 여러분  
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. 의학  
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몸에 의해서 일  
아나는 문제로, 색신이 망가져 주어진 일을 못하  
게 되니 가장 또한 행복이 깨지고 하는 등등의 경  
우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. 그러므로 일체를 다  
가오는 대로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걸림 없이 생  
활할 수 있습니다.

내가 예전에 산에서 내력을 때 여러분한테 이  
익을 줄 수 있고 거지되지 않다는 다짐을 할 수 있  
었고 실패를 해보고 '아, 이런 것이구나.' 하고 알  
았기 때문에 내려왔지, 그렇지 않았다면 내려오  
지 않았을 겁니다. 난 다짐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 
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다본다면 너무도 처  
참하리만치 고생스러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 
좋은 포기조차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릴 수  
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.

우리들은 지수화풍으로 문쳐져 있고 또 그 지  
수화풍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 
여러분한테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디만, 그

“  
일체를  
다가오는 대로  
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 
걸림 없이 생활할 수 있어  
”

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등  
이 출만하게 나올 수 있는 도리이므로 오신룡이  
라는 재료를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.  
그래서 우리들은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, 또  
칭정하다고 하고, 여여하다고 하고, 들이고 낼도  
역시 그렇습니다. 육근 육경을 심어치라 하고, 육  
근 육경 육식을 실패계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이  
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인간입니다.

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기가  
가설이 되어 있듯이, 우리 몸에도 정맥 · 동맥이  
돌아가면서 세포가 가설이 되어 있고, 우주 또한  
그렇게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법계라고  
합니다. 인간들에겐 세밀하게 세포가 그렇게 가  
설되어 있고 지구에도 그렇게 가설이 되어 있기  
때문에 우주와 인간계가 하나인 것입니다. 이렇  
게 모두가 제합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 
즉 말하자면 모두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  
가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질서가 정연  
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들도 돌아가고  
있습니다. 어느 것 하나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 
없습니다. 일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  
만 우리가 느끼질 못할 뿐입니다.

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 건 뭐냐? 여려  
분이 A형이라면 B형을 낳아서는 안되죠. 그렇게  
되면 기가 없어지는데 사람에게 병이 낳을 때는  
기를 돌우어 주고 병명을 파악해서 그 증세에 맞  
도록 치료를 해야 하듯이, A형의 환자에게는 A형  
피를 수혈해야 하듯이 우리들에게는 자동적으로  
이런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을 잘 들으십시  
오. 가설이 다 되어 있으니 주인공에 다 맡겨 놔  
라. 거기서밖에 해결을 못한단 할 때는 자동적  
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하듯 누르면  
되는 겁니다. 법계 자체가 마음먹는 대로 살 수 있  
습니다.

우리는 지금 먹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 
여기를 중(中)세계라고 합니다. 그 반면 영령들은  
냄새를 맡고 살고 있습니다. 또한 마음으로 사는

세계도 있습니다. 그건 어떤 세계나 하면, 이 공부  
를 한 사람들이 자재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참나  
생활을 하는 세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마음으로  
사는 세계, 그 세계에 산다면 죽어서도 눈 밝고 귀  
밝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,  
그냥입니다. 그러나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  
체마저도 벗어나야만이 참마음으로 사는 참나의  
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.

조금 전 세포에 대해 말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  
으므로 일체 만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그  
런데 요즘 첨단 과학이니 뭐니 하지만 이것만으  
로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죽여야  
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말  
하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  
도 죽이지 않고 양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도리입니  
다.

알고 보면 산과 들에 있는 무정물 · 식물 · 동물  
이 전부 약 아닌 게 없습니다. 일체가 한마음이기  
때문입니다. 그렇게 때문에 나는 생각한 겁니다.  
용도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피를 수혈하는 것처  
럼 동물 · 식물의 액을 섭취하면 좋은 약이 되는  
겁니다. 이렇듯 일체 모두가 가설이 되어 있던 말  
입니다. 풀포기 하나도 같이 살지 않는 게 없습니

대로 유전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연결이 되는 겁  
니다. 또 조상들에게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  
는 겁니다.

하지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위로는 육신을 주  
신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인과로 만난 선업 악업  
들을 다 제도하여 보살로 화하게 하고, 또 자기 자  
식들한테도 뿌리를 돌우어 즐기고 일사귀가 상상  
하게 해서 대대손손 번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 
러니 얼마나 무한한 입입니까? 하나로 인해서 업  
창난 문제가 벌어지고, 하나로 인해서 모든 문제  
가 해결되는 것입니다. 한생각으로 벌어지고 한  
생각으로 없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그러  
나 벌어지고 없어지는 것에도 걸리지 말고 자유  
스러워야 합니다. 내가 그대로 행하고 가는 그 자  
체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인 것  
입니다.

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를 한 번쯤 관찰하면서  
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  
다. 자기 주인공이 여기까지 자기를 형성시켜 왔  
으니까,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주면서 일  
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거  
기 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관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 
여유를 가져야 합니다. 죽고 사는 데에 걸림이 없

이 뜻은 바로 알아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 
치를 깨닫는다면, 아무리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  
지는 것 같은 고통이 다가와도 너그럽고 자애롭  
게 생각하면서 안으로 한번 굴러서 내놓을 수 있  
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, 한 걸음을 떼어  
놓아도 백 걸음 된 것보다 무게 있게 그 가치가 월  
등할 겁니다.

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아  
무리 달달달 외우고 백팔배 삼천배를 하고 정근  
을 오래 한다 해도 일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  
용이 없습니다. 마음으로 관하여서 직접 체험하  
고 또 실험해 보아야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  
이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약사보  
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.

여러분,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모든 보살  
들이 곧 여러분 자신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자  
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  
다. 관세음이니 지장이니 약사니 하는 명호도 다  
만 이름일 뿐입니다.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 
많은 이름의 보살들이 있는 것입니다. 우리들은  
한날 이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, 아니 그 마  
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재력을 가지고  
참나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, 불발을 가

수준에 맞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선택해야 좋은  
일이 아니겠습니까? 부모를 마음대로 여기 가라  
쳐기 가라 하고 좌지우지해서 그릇되게 하는 경  
우가 한둘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려  
있다 이겁니다. 남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했다가  
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각자가 주인공  
에 맡겨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 
데 말입니다.

예전에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무식한 어  
떤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 
이 사람이 약을 쓰기만 하면 환자들의 병이 낫는  
겁니다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약초로 병  
을 치료해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. 이 점을 이상하  
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상한 일이  
아닙니다. 조금 전에 같은 혈액형의 사람끼리 수  
혈해 줄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과 약초가 하나가  
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. 그것은 현  
대과학이나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 
일입니다. 이렇듯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 
야 양면이 다 살 수 있고, 또 그런 연구들을 해야  
만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.

이런 예도 있었습디다. 아마 몇 달이 지나오니  
작년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. 본인들이 이 자리  
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디만, 선원 어린이의  
법회에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이  
부모들이 가방과 책을 여기에 갖다 놓고 아이를  
둘러달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겁니다. 그때 실정  
이 어떠했습니까. 그 순간 나는 한편으로 당황  
되기도 하고, 한편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 
하는 생각으로 잠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디다.

“  
본래  
가설이 돼 있는 것이니  
주인공에 다 맡겨 놔라  
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  
”

그러다가 위로해준다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,  
“그래, 그 아이가 당신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되잖  
아.” 하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 
있어 그 딸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뭐라고  
위로를 해주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한마디 한 것  
이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나 말만이 아니라 그 말  
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. 말할 때는 쉬워  
도 그 뒤에 감당해야 하는 일은 참으로 회항이 어  
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답해 주는 것이 능사가  
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게  
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 일을 불가사의한 일  
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지만, 물론 억만금을 들  
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계속 꾸준히 공부  
하시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.

여러분,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. 그러나 무  
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  
니다. 여러분 중에는 화두를 참구하는 분들도 계  
시리라고 봅니다. 하지만 나는 쉽게 이렇게 말을  
하죠.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화두이자 참선이  
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즐  
것도 없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  
러분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. 화두를 받아가지  
고 끊어질까 봐 애쓰다가, 일하느라고 미쳐 쟁기  
지 못했으면 '아이구! 또 놓쳤구나.' 하는 생각들  
을 하죠.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 
만니다. 그러다보니 '참나'를 생각해 볼 여지가  
없어지는 겁니다. 그것은 헛바퀴 돌듯 그냥 빈 껍  
질만 돌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.

여러분, 길을 걸다가 문득 한 구투의 나무에 단  
풍이 들었다가 단풍잎이 무수히 땅에 떨어져 구  
투를 때 밟으면 부스럭 하고 나는 소리를 들으며 생  
각해 보는 마음, 혹은 큰 바위나 들을 보며 묘하게  
도 생겼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마음, 누가 배어간  
다 해도 누가 깨뜨려간다 해도 아무런 말이 없고  
그냥 잠자코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생각해 보

30면으로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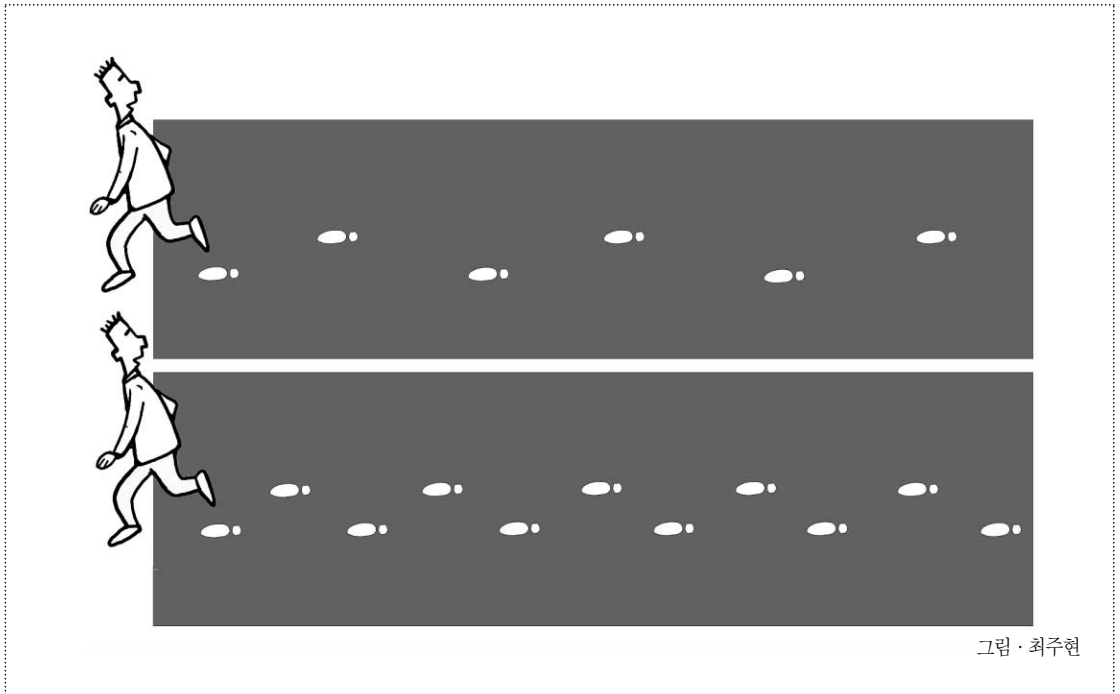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##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체마저도 벗어나야 참마음으로 사는 참나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

다.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, 병의 원인  
을 알고 치료법 또한 알고 있어 안 보이는 데 전력  
이 오고 가듯이 스스로 와서 약이 되는 겁니다. 내  
가 급할 때는 어떠한 식물 · 동물들을 약으로 쓸  
수 있는 자동적인 보배입니다. 바로 여러분의 마  
음속에 그 보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 보배는  
능력이 무한하며 체가 없는 반면에 참나참나 돌  
아가니 그것을 일러 주인공이라 하는 겁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될  
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. 다만 여려  
분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. 이 불가사의한 것  
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  
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겁  
입니다. 이 도리를 알면 부처요 모르면 증생입니다.  
부처 · 증생이 틀이 아니게 항상 함께 하고 있는  
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증생으로 사는 겁니다.

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공  
부라고 할 것도 없고 공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 
무한 채 독 안에 들어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 
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, 영원토록 윤회에 꼬달리  
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과도 벗어나지  
못한 채 독 안에 들어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 
으로 끝 간 데 없이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. 그  
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행을 하는

이야 하지만, 가정으로나 사회로나 책임을 완수  
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허물이 아니겠습니까? 자  
녀들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것, 그것도 바로 우리가  
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, 나 하나로 인해서  
모두 회생된다면 이 또한 안 되는 일이지요. 그러니  
언제나 자기 책임을 다하여 이전 가도 랜잡다 할  
때 갈 수 있게끔, 그런 것을 관해 보는 것도 좋을  
것 같습니다.

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겨보지 않는다면 그  
건 무효입니다. 부처님의 법이란 우리가 살아가  
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이 말  
을 관해보고 실험해 보십시오. 실험해보면 우리  
생활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 공부를 한들 무슨 소  
용이 있겠습니까? 커로만 들고 이론이나 지식으  
로만 배워서 안 됩니다. 한생각 내어 맡겨 놓으  
지 지켜보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않습니까? 여  
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.

이 세상에 는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나  
또한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도리  
를 실험해보고 배웠겠습니까? 풀 한 포기, 별레  
한 마리, 나무 한 그루도 내가 보지 않았으면, 어  
찌 이 도리를 알았으리까. 그러니 바로 내 스승이  
자 벗이요 도반인 것입니다. 나는 부처가 되려고  
이날까지 있어왔던 것도 아닙니다. 다만 여러분

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  
고, 항상 고통을 받고 끝 간 데 없이 유전 등 그 모  
든 것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 
되리라고 봅니다.

인연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. 여러분이  
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서 직접 생활하고 공부하  
는 데 응용하신다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관세음  
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약사보살이 되는  
겁니다. 이것이 바로 금강신인 것입니다. 여려  
분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  
고, 여러분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. 나는 하  
루에도 여러 번,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한 곳만  
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건 왜냐하면 무  
심코 여러분의 마음이 뜻으로 와 닿아서 감응이  
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심궁  
이 웃음이 나기도 하고, 때로는 뼈저린 눈물이 흐  
르기도 합니다.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 
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한마음으로 가설  
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아시려면 주저함이나 불  
러움이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.

여러분을 보면 가정의 아이들 삼국학교 진학문  
제를 놓고 정작 본인의 의견은 중요시 않고 부모  
들이 이 학교를 택할까 저 학교를 택할까 하고 망  
설임을 가지고 높고 낮은 데를 가리는데, 아이의

